

## 5) 유치원

일제 강점기에 순천지역에 유아교육기관으로 사립 중앙유치원·순천유치원·소화유치원이 있었다. 1912년 4월 15일 순천중앙교회가 중앙유치원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전남 최초의 유치원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였다. 1926년 12월에는 순천유치원이, 1928년 4월에는 소화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순천유치원은 한국인 보모 여자 2명·조수 2명, 원아 남자 23명·여자 23명으로 원장은 오영식이었다. 소화유치원은 보모 남자 1명·여자 1명·조수 1명이고 원아는 남자 24명·여자 16명이었으며, 원장은 송산정신(松山淨信)이었다.

당시의 사회적·교육적 여건으로 보아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은 다른 상급교육기관의 설립보다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남의 다른 지역, 특히 광주보다 먼저 유아교육을 시작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세 개나 설치되었다는 것은 순천지역 교육사 중에서 교육적 가치가 큰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사실이다.